



제65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4일)

고려시대 불교의식구

허형욱 | 302호 금속공예실 | 18:00~18:30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는 법구法具 또는 불구佛具라고도 하며, 불교의 의식 또는 의례儀禮에 사용하는 공예품입니다. 불교의식구는 쓰임새에 따라 공양구供養具, 장엄구莊嚴具, 범음구梵音具, 밀교법구密敎法具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범음구는 사찰에서 행사나 대중을 모을 때 사용하며, 소리를 이용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범종梵鍾,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 쇠북[금고禁鼓, 금구禁口, 반자] 등이 있습니다. 밀교법구로는 밀교 의식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저金剛杵(바즈라vajra)와 금강령金剛鈴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번창하고 사찰의 건립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불교의식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고려 전기의 불교의식구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점차 고려적으로 변화되어 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천흥사명 범종과 경암사명 쇠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흥사 범종은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의 기년명 종으로서, 1010년(현종1)에 제작되었습니다(그림1). 통일신라의 범종 양식을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준 고려 초기의 범종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종을 거는 윗부분의 고리는 용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뉴龍鈕라고 합니다. 용 옆에 있는 원기둥 모양은 음통音筒으로, 5단으로 구획된 표면이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한 줄의 띠를 두르듯이 공간을 나누어 꽃무늬로 꾸몄습니다. 종신鍾身 상부에는 네 군데에 사다리꼴 모양의 곱을 만들어 9개의 연꽃봉오리 장식을 덧붙였습니다. 하부에는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撞座와 하늘을 나는 듯한 천인상天人像을 교대로 배치하였습니다.

종의 몸통에 위패位牌 모양을 새기고(그림1-1) 그 안에 ‘聖居山天興寺鍾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성거산천흥사종명통화이십팔년경술이월일)’이라는 명문銘文을 양각하였습니다. 통화統和는 거란(요遼, 916~1125)의 연호이다. 1010년 2월에 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문에 나오는 성거산 천흥사는 오늘날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의 절터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종 몸통의 위패 모양 장식은 통일신라 범종에는 없던 것으로 고려시대에 새로 나타난 형식입니다.

경암사 명 쇠북은 1073년(문종27)에 만들어졌습니다(그림2). 고려시대 기년명 쇠북 중 가장 이른 예입니다. 지름 60cm로 큰 편이고, 옆면 좌우에 매달 수 있도록

작은 고리를 달았습니다. 앞면은 2개의 동심원으로 3개의 구획을 나누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구름문, 연판문을 장식했으며, 맨 안쪽에는 연밥이 장식된 자방子房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쇠북의 뒷면은 뚫려있으며(그림2-1), 구연부에 ‘咸雍九年癸丑十月日瓊巖寺盤子入重五拾五斤棟樑僧慶眞(함옹구년계축시월일경암사반자입중오십오근동량승경진)’ 라는 글을 음각하였습니다. ‘1073년 계축년 10월에 만든 경암사의 반자로서, 무게는 55근이고 동량은 승려 경진이다’ 로 해석됩니다. 명문의 경암사라는 절과 제작을 주도한 승려 경진에 대해서는 알려진 기록이 없습니다. 천흥사 범종과 마찬가지로 당시 고려의 국제관계를 반영하듯 북방 거란(요)의 연호를 썼습니다. 쇠북의 명칭을 ‘반자盤子’라 하였는데,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일신라의 함통咸通 6년(865년)명 쇠북이 ‘금구禁口’로 표기된 것과 다릅니다. 무게가 55근이라고 한 점도 주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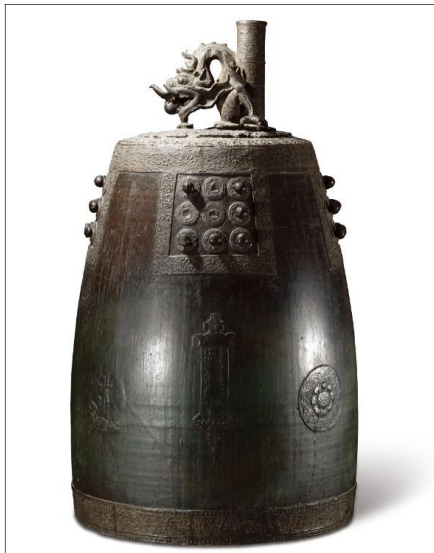


그림1. ‘천흥사’ 명 범종, 고려 1010년, 높이 187cm, 덕수2445, 국보 제280호



그림1-1. ‘천흥사’ 명 범종의 윗패 부분



그림2. ‘경암사’ 명 쇠북, 고려 1073년, 지름 60.6cm, 덕수2367



그림2-1. ‘경암사’명 쇠북의 뒷면

제65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4일)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7)

실경산수화의 오랜 전통

이수미 | 특별전시실 | 18:00~18:30

실재하는 주변의 산천을 화폭의 대상으로 삼은 산수화를 폭넓게 칭하여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라 하며 이 전통은 고려시대로 올라갑니다. 화원 이녕(李寧, 12세기)의 <예성강도>와 <천수사남문도(天壽寺南門圖)>, 이밖에 <양화루도>, <진양산수도>, <박연폭포도> 등 실경산수화에 대한 적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불교성지인 금강산을 직접 방문하고 금강산도를 구하였으며 금강산 특유의 산세를 포착한 화사 노영(魯英, 1307년작) 예배도에서는 실경산수화법의 오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경산수화의 제작에 기여합니다. 승경지(勝景地)에서의 모임을 그린 계회도契會圖에서는 특히 장소성이 강조되어 전통적인 구도를 따르면서도 실제 산천의 배치와 특징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주로 실용물이나 공리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실경산수화는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질적인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문인들 사이에서 명승유람(名勝遊覽)과 유람기(遊覽記) 문학이 유행하고 전국적으로 인문지리서가 활발하게 편찬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서적과 판화 또한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유람의 체험을 담은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 기유도(紀遊圖), 문인들의 별장이나 은거지를 그린 별서도(別墅圖), 유거정사도(幽居精舍圖), 지방에 부임한 관료들이 관할 지역을 기록한 순력도(巡歷圖) 및 지도적 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실경산수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점차 감상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이에 맞게 구성과 화법, 제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의 용어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데 실경산수화에 속하면서도 좁게는 18세기 정선(鄭敼) 이후의 작품들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경물(景物)의 본질을 중시하는 태도와 경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나아가 사생(寫生)의 현장성과 이를 재해석하는 독창성이 진경산수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진경산수 화가들은 오랜 실경산수화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면서도 중국의 남종화(南宗畫) 양식을 새롭게 수용하고,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여 우리의 산천을 우리식으로 그리려는 시각과 화법을 독창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그림1. 우) 작가미상, 경포대, 1746~48년,
31.5×22.5 cm, 비단에 엮은 색

그림2. 좌) 정선, 총석정도, 1711년,
38.3×37.5 cm, 비단에 엮은 색



개성 현화사 석등의 복원

김중우 | 역사의길(경천사10층석탑 앞) | 19:00~19:30

개성 현화사 석등은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현화동 현화사터에 남아 있던 것으로 고려 현종 10년(1020)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등의 구성은 기대基臺와 하대석으로 구성된 하대부와 고북형鼓腹形 간주석, 사각의 화사석火舍石, 방형 옥개석, 상륜부로 구성되어있으며, 높이는 4.2m 정도로서 웅장하여 모습을 보여줍니다. 석등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서울로 옮겨졌고, 이후 덕수궁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경복궁의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전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손상된 부분이 많아 파손위험이 높아 1986년에 해체되어 격납되었으며, 2001년 4월 보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다시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노출 전시로 인하여 과거 옥계석에 사용된 장식 보조물(철)의 부식으로 인한 암석 균열과, 과거 사용된 복원재의 풍화 및 접착제의 열화 등 으로 인하여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2017년 다시 해체하여 2018년부터 석등의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존처리 과정으로는 석등의 상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조사, 정밀 3D 스캔, 표면의 오염물 제거, 과거 사용되었던 복원재료들의 제거, 풍화된 암석의 강화처리 및 균열부의 보강처리, 결손부분에 대한 신석접합과정, 표면 색맞춤과정 등을 통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화사 석등은 2019년 9월 이후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박물관 정원에 재 전시될 예정입니다.



도1. 보존처리 전 전경



도2. 석등 보존처리 과정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9) 에트루리아의 장신구

노희숙 | 기획전시실 | 19:00~19:30

에트루리아인들이 착용한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는 일반적인 장신구입니다. 가장 놀라운 작품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된 금 잎



그림 1. 화관, 기원전 4세기, 길이 26.0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들로 장식된 화관입니다. 화관은 헬레니즘 시기의 전형적인 머리 장신구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하였으며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었습니다.

반지는 남녀가 모두 착용하였습니다. 반지에 박힌 보석에는 문양을 새기기도 하였는데, 실재 혹은 가상의 동물이나 복잡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있다. 보석을 가공하는 풍부한 상상력과 기술은 에트루리아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반지는 아르카익 시기부터 도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귀걸이는 다양한 모양이 사용되었습니다. 거머리 모양, 사각형 모양, 원판 모양 귀걸이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유행하다가 원통 모양 관을 구부려 둥글게 만든 귀걸이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귀걸이는 고리가 달린 단순한 형태에서 누금 등 화려하게 장식된 복잡한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피라미드 모양 귀걸이는 윗부분은 원판 모양이며 아랫부분은 뒤집힌 피라미드 모양을 한 귀걸이로 그리스 식민도시에서 제작된 것을 모방하였고 에트루리아에서는 헬레니즘 시기에 다시 재현되어 특히 볼테라에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그림 2. 반지, 기원전 4세기 후반, 지름 2.7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그림 3. 귀걸이(거머리 모양), 기원전 7세기 말~6세기 중반, 길이 3.2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그림 4. 귀걸이(피라미드 모양), 기원전 3세기~2세기, 길이 4.0cm,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 박물관